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1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도시철도공사

3·1운동의 숭고한 뜻 기리며 시민들 곁으로 ‘무한 질주’

“쾌적하고 안전한 광주지하철이 항상 시민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31명의 건각 출사표

광주도시철도 직원들은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는 단골 손님이다.

절을 기념하기 위해 31명의 건각들이 출사표를 냈다.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만큼 직원들의 출전 포부도 각양 각색이다.

5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승무팀 김용기씨는 “해를 거듭할 수록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 있다”며 “함께 뛰는 동료들과 함께 우정도 다지고 위기의 순간에 민족을 구하려했던 선인들의 용기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전략경영팀 김진희씨는 “10km를 완주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체력을 점검하는 한편 육체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직원들도 있다.

기지사업소 업무팀 류정현씨는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는데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싶다”며 “대회가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웃었다.

문화·복지 지하철 자리매김

홍보교육팀 이상호씨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조깅을 해온 만큼 이번 대회는 기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다양한 시민 서비스를 제공, 광주지하철을 문화·복지 지하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제44회 광주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최근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1호선 2구간 개통 후 급증한 노약자·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전동차 좌석 3천864석 가운데 30%인 1천104석을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확대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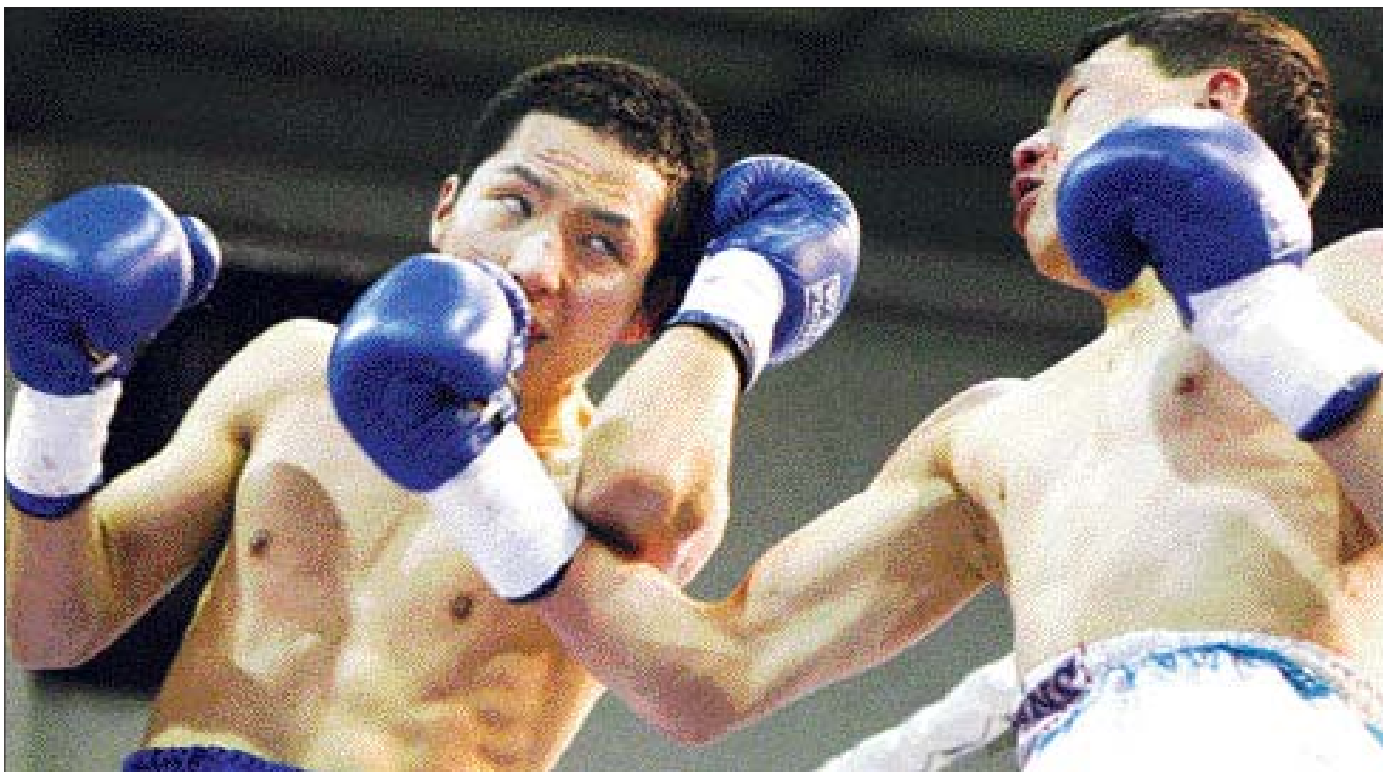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역사 운영

또 테마가 있는 지하철 역사 운영을 위해 광산구 송정지역에서 국창 임방울 선생의 전시관, 인권테마전시관 등을 개관 운영하

고 있다. 정기적으로 메트로축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개최해오고 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농수산물 축제를 열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챔프를 꿈꾸며...

28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공고체육관에서 열린 2008년 권투 전국 신인왕전 S밴텀급 예선 노민우(오른쪽·김천BK체육관)와 이현우(김태식체육관)의 경기에서 양 선수가 서로를 응시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기 결과는 이현우 4라운드 KO승. /연합뉴스

‘살인 링크’ 이용대 선수 광주 지하철 홍보대사 위촉

‘살인 링크’로 유명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21·삼성전기)가 광주 지하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용대는 28일 오전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오영원 사장으로 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이용대는 위촉장을 받은 후 “고향 화순이 발전하려면 광주지하철 1호선 연장이 꼭 필요한 것 같다”며 “관들에게 보답하

는 마음으로 화순과 광주지하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앞으로 지하철 홍보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에서 공사모델로 뛰게 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건강미 넘치는 이용대 선수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 광주지하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28일 오전 광주도시철도공사 상형실에서 오영원 사장(오른쪽)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다 인상 7천만원

윤석민

최다 삭감 1억5천만원

최희섭



KIA 타이거즈 총 연봉 32억5,400만원... 25명 인상 15명 동결 12명 삭감

KIA 타이거즈가 28일 내야수 김종국, 이현근과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시즌 연봉 재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전지훈련을 위해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하기 전 구단측과 구두합의를 했던 김종국과 이현근은 이날 각각 1억5천만원에서 20% 삭감된 1억 2천만원과 1억2천만원에서 16.7% 삭감된 1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올 시즌 KIA의 연봉 재계약 대상자는 김종국, 이현근을 포함해 모두 52명. 윤석민을 포함해 25명의 선수가 연봉 인상의 기쁨을 누렸고, 15명은 동결, 12명은 삭감됐다.

구단 총 연봉은 지난 시즌 31억8천2백만원에서 2.3% (7천2백만원) 오른 32억5천4백만원이다.

최다 인상 금액과 인상률의 영예는 지난 시즌 15승과 7승을 올리며 신예 원투펀치로 활약했던 입단동기 윤석민과 이범석이 차지했다.

윤석민은 지난해 1억1천만원보다 7천만원(63.6%)인상된 1억8천만원에 연봉 협상을 끝내면서 최다 인상금액의 주인공이 됐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윤석민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규와 한기주가 그 뒤를 잇는다.

이용규는 6천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1년만에 역대 연봉자(1억5천만원)명단에 재등록했고, 한기주는 5천만원이 올라 프로데뷔 4년만에 역대 연봉자(1억2천만원) 대열에 합류했다.

최다 인상률은 117.4%를 기록한 이범석이 차지했다. 지난 시즌 거침없는 강속구를 내세워 KIA 마운드의 셋발로 떠오른 이범석은 2천3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되면서 117.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김상훈의 부상으로 안방마님 자리를 지켰던 포수 차일목도 3천만원에서 100% 인상된 6천만원에 새 시즌을 기약했다.

부상으로 신음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낸 ‘빅 초이’ 최희섭은 최다 삭감액과 삭감률로 불명예스러운 2연패를 장식했다.

2008시즌 55게임에 나서 0.229의 타율로 6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린 데 그친 최희섭은 3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연봉이 깎이며, 2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연봉 삭감률은 42.9%다.

호된 한국무대 신고식을 치른 서재응도 연봉 삭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전지훈련에서 입은 왼쪽 헬스트링 부상으로 출장부터 순탄치 못했던 서재응은 5승5패의 성적표를 제출하면서 5억원에서 25% (1억2천500만원) 줄어든 3억7천5백만원에 재계약했다.

한편 KIA의 역대 연봉자는 이대진, 김상훈, 이종범 등 11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봉은 전체 연봉의 55.8%에 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애, 세마와 매니지먼트 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지존’ 신지애(21)가 매니지먼트사 세마스포츠마케팅을 구원투수로 영입했다.

세마스포츠마케팅은 신지애와 계약을 맺고 후원업체 물색 등 경기 외적인 업무와 세부적인 일정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마스포츠는 LPGA 투어의 만년니 박세리(32)를 비롯해 최나연(22·SK텔레콤)의 매니지먼트도 맡고 있다. 이달 초

후원업체였던 하이마트와 결별했던 신지애는 세마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게 됐다. 신지애는 또 이전 매니지먼트사 티골프스튜디오와 계약도 끝냈지만 이 회사 소속 전현지 코치와 사재관계는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난 신지애는 2월5일 골드코스트 로열파인스골프장에서 개막하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NZ 레이디스마스터스에 출전해 올해 첫 실전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위성미·신지애 LPGA 개막전 격돌

내달 12일 SBS오픈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된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사진)가 고향 땅 하와이에서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2월12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LPGA 투어 SBS오픈 대회조직위원회는 하와이 오아후섬 터틀베이골프장 파머코

스에서 열리는 시즌 첫 대회에 위성미가 출전한다고 28일 밝혔다.

파머코스는 2005년 대회 당시 아마추어였던 위성미가 15세의 나이에 공동 2위에 올라 잠재력을 보여준 곳이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지존을 꿈꾸는 신지애(21) 등 쟁쟁한 신인들과 플라 크리머, 나탈리 겔비스, 모건 프래셀, 크리스티 커(이상 미국)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